

‘불타는 청춘’·‘발칙한 동거’·‘우리 결혼했어요’ 등

예능계 4050 스타들이 뜬다

농익은 애드리브로 시청자 눈길

리얼한 중년 연애에 색다른 매력

아이들의 전유물 같았던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 자리가 40·50대 스타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100세 시대에 마흔은 많은 나이가 아니다. 대본 읽기에 급급한 데다 연애 열애설이 터질지 모르는 아이돌보다는 농익은 애드리브로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는 중년 스타들을 지켜보는 것이 시청자나 제작진이나 편한 측면도 있다.

중년 연애 예능의 물꼬를 튼 JTBC ‘님과함께?’의 윤정수(45)·김숙(42) 커플 이후 지상파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SBS TV ‘불타는 청춘’은 중년 싱글 스타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알아가며 친구가 된다는 콘셉트를 표방했다가 김국진(52)·강수지(50)라는 진짜 커플을 낳으면서 몰입감을 높였고, ‘2호 커플’에 대한 기대도 모은다.

MBC TV ‘발칙한 동거’도 연애가 주된 재료는 아니지만 김구라(47)와 한은정(37)의 동거를 보여주며 비슷한 코드를 깔았다.

대표적인 청춘 연애 예능 MBC ‘우리 결혼했어요’도 10년 만에 변신했다. 돌파구는 ‘아재’ 매력을 발산 중인 마흔 살의 최민용이었다. 아내 장도연은 32세이지만, 이 커플은 최민용이 사실상 리드한다. 궁전이 아닌 섬마을 단칸방에서 벌어지는 유머 넘치는 신혼일기는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우결’의 최원석 책임프로듀서(CP)는 3일 “‘우결’이 최민용-장도연의 합류로 전환점을 맞았다. 시즌5에도 두 사람이 함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케이블 채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년 스타 부부의 일상에 주목했다.

이채널 ‘별거가 별거냐’는 남성진(47)·김지영(43) 부부의 별거 모습을 담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채널A ‘아내가 뿔났다’도 이봉원(54)·박미선(50) 등을 내세워 리얼리티를 극대화했다.

중년 스타들의 연애·결혼 예능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다른 예능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리얼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의 가상 연애에는 돈 격정도, 권태기 격정도 없다. 얼마나 더 낯익은 이벤트를 해줄지 정도가 고민거리이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중년 커플은 상대방의 철없는 소리에 구박도 하고, 서로 귀찮을 때는 거리를 두며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지 가끔 사랑을 표현하면 젊은 커플이 하는 수준의 절반만 해도 설레는 묘미도 있다.

10~20년 전이라면 4050세대가 이 분야에서 활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중년들이 가상 연애 예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수명 연장, 결혼 양상의 다양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방송 관계자들



은 분석한다.

최원석 CP는 “옛날에는 40세면 중년이라는 느낌만 들었지만 수명이 연장되면서 나이를 잊은 시대가 됐다”며 “연애와 결혼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연령에 대한 투박함이 사라지면서 예능 트렌드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결’ 역시 재정비 기간 ‘졸혼’ 등 다양한 결혼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연애를 하는 청춘 스타가 늘어난 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는 해석도 있었다.

방송가 관계자는 “젊은 스타들도 요새는 공개연애를 많이 해서 젊은 연령층이 나오는 가상 연애 프로그램은 리얼리티에 더 의문 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년 만에 돌아온 남성 듀오 ‘클론’

데뷔 20주년 기념 새 앨범·공연 준비 한창

1990년대를 주름잡은 남성듀오 클론(강원래, 구준엽)(사진)이 12년 만에 컴백한다.

클론의 강원래는 지난 1일 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클론 6집을 준비 중”이라며 “신곡 2곡의 녹음을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곡은 멤버 구준엽이 만들고 프로듀서 김창환이 작사·작곡에 참여했다”며 “구준엽이 반주를 만들고 김창환이 멜로디와 가사를 붙인 히트곡 ‘피 미’를 생각하면 된다.

멜로디가 별로 없는 EDM(일렉트로닉댄스 뮤직)”이라고 소개했다.

또 “디지털 싱글이 될지, 20주년 기념 음반이 될지 아직은”이라며 “6월 말에 나올 듯하다”고 덧붙였다.

1996년 데뷔한 클론은 지난해 20주년을 맞아 6집을 기념 음반 형태로 낼지 논의 중이며 20주년을 기념한 공연도 계획 중이다.

아직 녹음은 안 했지만 신곡에는 가수 예일리 가 참여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론이 새 앨범을 내는 것은 2005년 5집 ‘빅



토리’(Victory)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들의 활동 재개는 2000년 4집 이후 5년만으로 그사이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 공백기를 보냈다.

5집 활동에서 강원래는 휠체어를 타고 음악 방송에서 ‘휠체어 댄스’를 선보여 감동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무한도전’ 가정의 달 맞아 콩트 도전

6일 ‘어느멋진 날’ … 녹도이야기

서현진 출연 … 선생님이로 변신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오는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특집 ‘어느 멋진 날’을 방송한다고 3일 소개했다.

이번 특집은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섬 녹도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다.

특히 오랜만에 ‘무한도전’ 특유의 콩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멤버들은 고향의 단 하나뿐인 초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뒤 각자 교사, 우체부, 경찰, 보건소 간호사, 식당 운영 등을 하며 마을을 지키는 청년들 역할을 맡았다.

게스트로는 배우 서현진(사진)이 출연해 실제 녹도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진희 남매와 만난다. /연합뉴스



서현진은 유재석과 함께 아이들에게 동요와 율동을 가르쳐줄 예정이다. 오는 6일 오후 6시 20분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2:45 명의(제)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자체발광 오피스(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부처님오신 날 특집다큐(제) <눈궤가 스님들의 산중일기>	00 인간극장 스페셜		00 애니캐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가정의 달 특집 애니메이션 (미투리) 50 아버지 재가 모실게요(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보림설계
1	00 제19대 대선 후보자 경력방송 05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55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55 닥터 365
2	55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생방송 발견(제)		00 뉴스브리핑
3	2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MBC 일일드라마 (아버님 재가 모실게요)(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제)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티빙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집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5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7	00 KBS 뉴스7 15 가정의 달 기획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35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속보이신TV 인사이드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20 KBS 스페셜 발명의날 기획 2부작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15 KBS 뉴스라인 40 목요일기획 2부작	10 해피 투게더	10 MBC 100부 토론	10 자기야-백년송남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보고 싶은 얼굴>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자 스프링클) 11:20 세계테마기행(제)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함께해서 더 행복한 우리)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꼬미와 친구들 15:45 랜던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제) 16:30 Why - 최고의 호기심짜(제) 16:45 덩동영 유치원1~2(제) 17:15 뽀롱뽀롱 뽀로로(제) 17:30 로보가 놀리 17:45 똑딱맨(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세계 어린이 드라마 특선 <진정한 친구 내 친구 종브리얼라>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천국보다 타히티 - 촉박의 섬 모리아> 21:30 한국기행 <봄나물 열전 2 - 오지에서 만난 나들이네> 21:50 대통령 후보 초청 특별 대담 (정의당 심상정 후보)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4일(음 4월 9일 辛卯)

子	48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정에 이르게 된다. 60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72년생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해졌다. 84년생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행운의 숫자 : 89, 36	午	42년생 미세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태이다. 54년생 망설이지 말고 힘차게 두드려라. 66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78년생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낫다. 90년생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행운의 숫자 : 30, 74
丑	49년생 지난날의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 61년생 의무를 다하고 나면 바람직한 국면에 처해라. 73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85년생 능력을 과신하다가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5, 39	未	43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 뺐다. 55년생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중간에서 단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79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 왔던 것이 큰 변수로 돌아올 수 있다. 91년생 뜻을 분명히 하라. 행운의 숫자 : 19, 66
寅	50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62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라. 74년생 가만하면 있으면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86년생 그동안 비밀에 싸여 있었던 것의 공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행운의 숫자 : 20, 91	申	44년생 규모의 대소와 상관없이 증차대환 일이다. 56년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니 여유를 가져도 된다. 68년생 유동적이나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해야겠다. 80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길일에 해당한다. 행운의 숫자 : 81, 57
卯	51년생 땅이 꺼지게 한술 쥘 일이 생겼었다. 63년생 타인에게 시키려하지 말고 직접 모색하는 것이 제일 낫다. 75년생 관련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87년생 중요으로써 삼가면 만사가 행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87	酉	45년생 털어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57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과 실행이 요구된다. 69년생 이면의 불씨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1년생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42, 10
辰	52년생 맞대응하려 하지 말고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64년생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이니 마무리까지 잘하라. 76년생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다. 88년생 합당한 것만을 찾기는 힘들다. 행운의 숫자 : 68, 09	戌	46년생 흠속에도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보인다. 58년생 지체가 앞서야 할 관세이다. 70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날을 것이다. 82년생 한 번 시작하면 술술 풀려나가게 될 것이니, 행운의 숫자 : 10, 66
巳	53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재재하는 것이 합당하다. 65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니 습관적인 반복수에 속지 말라. 77년생 사소한 흠결을 주의하라. 89년생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08, 73	亥	47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국면이니 진중하라. 59년생 사소함을 차치하고 과단한다면 후회할 게 없을 것이다. 71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볼 일이다. 83년생 집중한다면 분명히 성취하게 되어 있으나, 행운의 숫자 : 64,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